

‘첫 그룹A 진입’ 상주 “우리는 뺑공이다”

(박진감 넘치는 공격축구)

조진호 감독, 스플릿 라운드 각오

시즌 전 ‘강등 0순위’ 평가 무색 “여기서 만족 않고 매 경기 최선을”

“박진감 넘치는 공격축구를 멋진 경기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2016’ 스플릿 라운드(팀당 5경기)가 15일부터 시작된다. 정규 33라운드까지의 결과에 따라 그룹A(1~6위)와 그룹B(7~12위)로 나뉘 펼쳐질 스플릿 라운드를 통해 올해 클래식(1부리그)의 최종순위가 가려진다. 우승, 준우승과 함께 내년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을 결정할 그룹A에는 전북현대,

FC서울 등 그야말로 쟁쟁한 팀들이 포함됐다. 그 가운데 유독 눈길을 끄는 팀이 상주상무다.

지난해 챌린지(2부리그) 1위를 차지해 2년 만에 다시 클래식 무대를 밟은 상주는 올 시즌 개막 직전만 해도 ‘강등 0순위’로 꼽혔다. 2013년 챌린지 1위로 이듬해 클래식에 데뷔했지만

그러나 지난해 12월 취임한 조진호(43·사진) 감독은 개인별 동기부여를 통해 선수들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냈고, 선



전을 거듭한 상주는 창단 후 첫 그룹A 진입이란 값진 열매를 따냈다. 임상협, 이용, 박기동, 박준태 등 팀을 이끌던 16명의 선수들이 대거 전역한 9월 이후 2부3패로 고전했지만, 전북과의 33라운드 홈경기에서 1-1로 비긴 덕분에 그룹A행 막차를 탈 수 있었다. 스플릿 라운드 돌입을 앞두고 선수들과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조 감독은 “상위 스플릿 진출에 만족하지 않고 매 경기 승리를 위해 뺑공”이라며 “박진감 넘치는 공격축구를 멋진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쟁쟁한 기업구단들과 경쟁해야 하지만, ‘잃을 게 없는’ 상주는 오히려 마음이 가볍다. 특히 그룹A에서 만날 5개 팀들 가운데 전북(2부1패)을 제외한 나머지 4개 팀과의 올 시즌 각 3차례의 맞대결에서 최소 1승씩을 빼앗은 사실도 자신감을 높여주는 요소다. 비록 챔피언스리그에 나갈 자격은 갖추지 못했지만, 다른 팀들의 ‘고춧가루 부대’ 노릇을 하겠다는 의지로 가득하다. 더욱이 33라운드 전북전 1-1 무승부에서도 드러나듯 시간이 흐를수록 공수의 짜임새를 회복하고 있다. “상위 스플릿 진출에 만족하지 않고 공격축구를 펼치겠다”는 조 감독의 말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 이유다. 김도현 기자 dohyeon@donga.com



‘날아라, 괴체’ 독일은 9일(한국시간) 함부르크에서 벌어진 체코와의 2018러시아월드컵 유럽 최종예선 C조 2차전 홈경기에서 토마스 뮐러의 멀티골을 앞세워 3-0 완승을 거두고 2연승으로 조 1위를 질주했다. 독일 마리오 괴체(오른쪽)가 공중볼을 향해 몸을 날리고 있다. 함부르크(독일) | AP뉴시스

뮐러, 역시 월드컵에 강한 사나이

통신원 리포트

월드컵 최종예선 체코전 멀티골 2경기 4골...독일 2연승 이끌어



풀어나가는 해결력이 돋보였다”며 만족스러워했다. 지난날 5일 오슬로 원정에서 노르웨이를 3-0으로 일축하고 최종예선 서전을 승리로 장식했던 독일은 이날도 막강 화력을 과시했다. 최종예선 2경기에서 무려 6골이다. 특히 뮐러는 노르웨이와 체코를 상대로 2경기 연속 4골을 몰아쳤다. 유로2016에서 뮐러의 침묵은 독일의 골 가뭄으로 이어졌고, 이는 독일의 치명적 약점으로 부각됐다. 게다가 마리오 고펜츠(31·볼프스부르크)마저 부상으로 전열을 이탈하면서 우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러나 뮐러는 역시 월드컵에 강한 사나이였다. 독일 언론에서도 “뮐러가 독일이 나아가길 길을 만들었다”고 칭찬할 정도로 지난 2경기에서 그의 공격력은 폭발적이었다.

뮐러의 활약도 대단했지만, 체코전 예선 독일의 감정이 제대로 입증됐다. 수비는 쓰리백이든 포백이든 완벽히 소화했다. 전방에선 다양한 공격 루트로 상대를 압박했다. 플랜A는 물론 플랜B와 플랜C까지 모두 빈틈이 없었고, 후보들도 모두 주전이라고 할 만큼 스쿼드 또한 탄탄했다. 독일은 12일 북아일랜드와 최종예선 3차전을 치른다. 뮐러(독일) | 윤영선 통신원

칠레까지 완파...돌풍의 에콰도르

월드컵 남미 최종예선 ‘반환점’ 3~5위 승점 동점 치열한 경쟁

2018러시아월드컵 본선 진출을 향한 대륙별 최종예선의 열기가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 남미는 팀당 9경기씩을 치르며 반환점을 돌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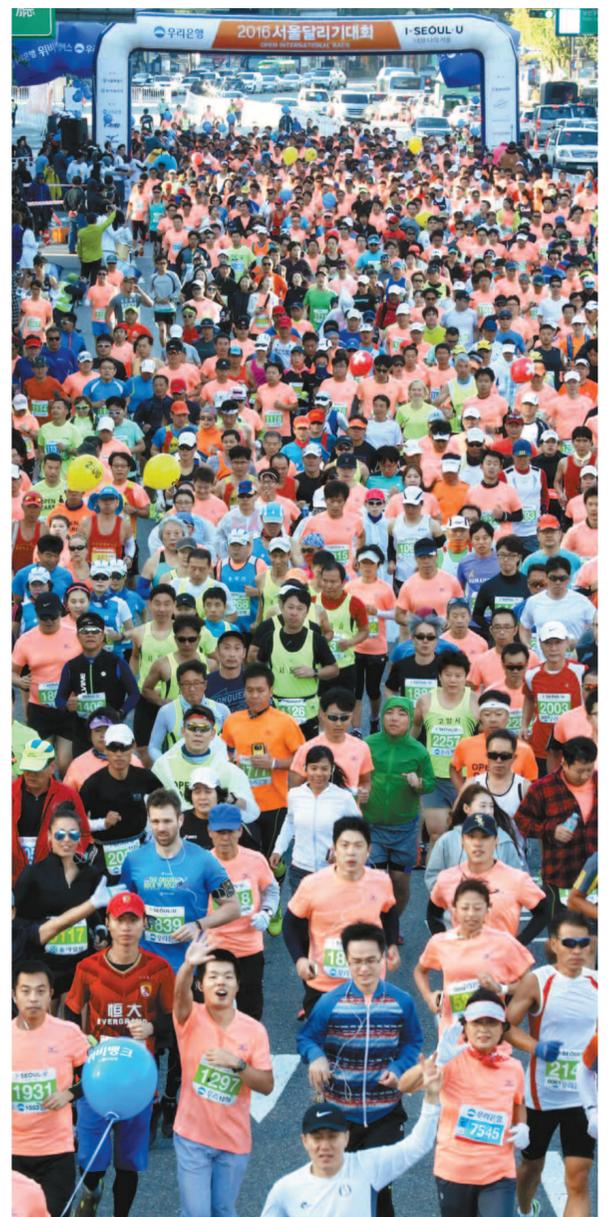
7일(한국시간) 일제히 펼쳐진 남미 최종예선 9차전에선 에콰도르의 돌풍이 돋보였다. 에콰도르는 이날 아타후알타 올림픽스타디움에서 벌어진 9차전 홈경기에서 코파 아메리카 2연패에 빛나는 칠레를 3-0으로 완파했다. 에콰도르는 전반 18분 안토니오 발렌시아(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선제골을 시작으로 칠레를 몰아치면서 압도적 경기력을 과시한 끝에 1승을 추가했다. 에콰도르는 5승1무3패, 승점 16으로 5위에서 3위로 올라선 반면 칠레는 3승2무4패, 승점 11로 7위에 머물렀다.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는 우루과이와 브라질도 나란히 승리를 신고했다. 우루과이(6승1무2패·승점 19)는 에딘손 카바니(파리 생제르맹)의 멀티골에 힘입어 베네수엘라(2무7패·승점 2)를 3-0으로 눌렀고, 브라질(5승3무1패·승점 18)은 볼리비아(2승1무6패·승점 7)를 5-0으로 대파했다. 브라질의 간판스타 네이마르 다 실바(FC바르셀로나)는 1골·2도움으로 승리에 앞장서며 이를

순위	국가	승-무-패	득	실	승점
1	우루과이	6-1-2	19	5	19
2	브라질	5-3-1	21	9	18
3	에콰도르	5-1-3	16	12	16
4	콜롬비아	5-1-3	13	10	16
5	아르헨티나	4-4-1	11	8	16
6	파라과이	3-3-3	9	12	12
7	칠레	3-2-4	13	15	11
8	페루	2-2-5	10	17	8
9	볼리비아	2-1-6	9	18	7
10	베네수엘라	0-2-7	9	24	2

* 9차전 결과(7일·한국시간) 우루과이 3-0 베네수엘라, 브라질 5-0 볼리비아, 에콰도르 3-0 칠레, 콜롬비아 1-0 파라과이, 페루 2-2 아르헨티나

값을 톡톡히 했다. 반환점을 돈 남미 최종예선에선 3~5위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남미에는 4.5장의 월드컵 본선행 티켓이 걸려있다. 5위로 밀려날 경우 오세아니아 1위와 대륙간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 3위 에콰도르, 4위 콜롬비아(5승1무3패), 5위 아르헨티나(4승4무1패)가 똑같이 승점 16을 기록 중이다. 골 득실차로 가려진 중간 순위다. 매 경기 결과에 따라 언제든 바뀔 수 있다. 이들 3개국은 12일 나란히 10차전을 펼친다. 에콰도르는 9위 볼리비아, 콜롬비아는 1위 우루과이, 아르헨티나는 6위 파라과이(3승3무3패·승점 12)와 각각 맞붙는다. 정지욱 기자



‘도심을 달리다’ 동아일보와 서울시가 공동 주최한 2016서울달리기대회가 9일 서울광장 앞을 출발해 독성 한강공원으로 끝나는 하프코스과 청계천을 지나 서울광장으로 돌아오는 10km 코스에서 펼쳐졌다. 올해로 14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에는 일반시민과 외국인 등 약 9000명의 마라톤러들이 참가해 상쾌한 가을 날씨를 즐기며 서울도심을 달렸다. 10km 마스터스 남자부 1위는 33분11초를 기록한 미국의 브라이언 매닝(27)이 차지했고, 여자부에선 러닝과 철인 3종 경기 동호회 ‘오픈 케어’ 회원들이 1, 2위를 휩쓸었다. 대회 참가자들이 서울광장을 출발해 세종대로를 힘차게 달리고 있다. 최혁중 동아일보 기자 sajinman@donga.com

KGC야! 지명권 줄게, 안 쓰는 선수 다오

두꺼운 선수층 타팀 부러움 한몸 드래프트 앞두고 트레이드 촉각

남자프로농구 10개 구단은 3일 ‘2016 국내신인선수 드래프트’ 지명권 순위 추첨을 마쳤다. 드래프트는 18일로 예정돼 있다. 각 구단은 추첨으로 뽑은 지명순위에 맞게 팀 전력에 보탬이 되는 신인을 선발하기 위해 고민 중이다. 이 중 몇몇 팀은 지명권과 기존 선수를 활용한 트레이드도 구상하고 있다. 이 같은 시도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팀은 KGC다.

KGC는 국내선수층이 가장 두꺼운 팀이다. 특히 2·3번 포지션(슈팅가드·스몰포워드)에 선수들이 몰려있다. 베테랑 양희종(32), 강병현(31), 이정현(29), 전성현(25), 문성곤(23)에다 오프 시즌에 박찬희(29)를 전자랜드에 내주고 얻은 한희원(23)까지 가세하면서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좋은 선수들이 워낙 많다보니 지난해 신인드래프트 1순위 문성곤의 2015~2016시즌 경기당

출전시간이 7분30초밖에 되지 않을 정도였다. 이에 KGC는 오프시즌 내내 타 구단들로부터 ‘좋은 선수들을 벤치에 앉혀놓으려거든 우리 팀에 달라’는 말을 들어야 했다. 실제로 몇몇 구단과는 트레이드가 논의되기도 했지만, 성사가 이어지지 않았다.

신인 드래프트 4~10순위 지명권을 보유한 구단들 입장에선 KGC 선수들이 신인보다 훨씬 구미가 당기는 카드다. A구단 감독은 “문성곤은 올 시즌에도 출전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다. 우리 팀에 오면 잘 쓸 수 있는 카드다. 가치가 떨어졌다고는 해도 지난 시즌 1순위 아닌가. 우리 팀 신인 지명권과 바꿀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며 관심을 드러냈다. KGC도 포지션 중복을 해결하고 싶지만, 여기에 쫓겨 어영부영 팀의 자산을 내줄 마음은 없다. KGC는 포인트가드 또는 백업 빅맨 보강을 원하고 있다. ‘KGC트레이드’의 성사 여부는 이번 신인 드래프트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충분하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진중오, 전국체전 10m 공기권총 6연패 진중오(k)가 9일 충북 청주종합사격장에서 열린 제97회 전국체육대회 3일째 사격 남자일반부 10m 공기권총에서 203.3점의 대회신기록(총점 202.2점)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부산대표로 출전한 진중오는 8일 벌어진 50m 권총에 이어 10m 공기권총에서도 정상에 오르며 세계 최강자다운 면모를 과시했다. 진중오는 2011년부터 올해까지 전국체전 남자일반부 10m 공기권총 6연패의 기쁨도 함께 누렸다.

프로농구 삼성, 미군연합팀과 친선경기 남자프로농구 삼성은 8일 서울 용산 미군기지를 방문해 미군연합팀 REBELS와 친선경기를 벌였다. 2011~2012시즌부터 ‘주한미군의 날’ 행사를 이어온 삼성은 친선교류 차원에서 용산 미군기지를 찾자 경기를 치른 뒤 점심식사로 함께 했다. 미8군 용산지역 스포츠 피터슨 사령관은 “삼성의 방문에 감사하다. 앞으로도 이런 행사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며 밝혔다. 편집 | 고형일 기자 ico@donga.com